

국민적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촌공간정비

최 수 명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 농촌공간정비논의의 함의

농촌공간이 농지 및 농지와 기능적 조화관계에 있는 소규모 마을, 그리고 자연으로 이루어졌던 전통농업사회에서는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공간에 대한 논의가 거의 불필요하였다. 그러나 도시산업사회화가 문명적 흐름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농촌공간을 바라보는 시각과 수요가 다원화·다양화되어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부합되는 공간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촌공간에 대한 도시민과 농촌주민, 농업부와 타 산업부의 시각에 상당한 차이, 그래서 갈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의 영향이 광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농촌지역 내부에서도 지리적 위치 및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지역적 및 기능적 분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또한 필연적으로 공간의 외형, 즉 경관의 변화를 야기하게 되어 기능 및 지역별로 독특한 경관을 창출 또는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농촌공간정비는 전체 및 단위공간 수준에서의 요소간 기능적 관계를 최적화하는 내부공간정비(또는 공간기능정비)와 심미적 경관을 창출하는 외부공간정비(또는 지역경관정비)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물론 양자는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한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긴밀한 연계구조 하에 있기 때문에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양대 정비부문 중 첫 번째 부문인 공간기능정비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 특집의 또 다른 주제문에서 경관부문을 다루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두 번째 부문은 조경전문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도 그러하다.

농촌공간은 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삶의 활동을 담아 내는 그릇, 즉 일터, 살터, 쉼터이기 때문에 정비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활동의 변화양상과 바탕이 되는 배경, 주변 또는 광역적인 제반 여건의 변화 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농촌지역 내외의 여건변화는 현대사회, 특히 지식정보사회가 갖는 다원성·다양성·복합성에 의해 열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다단하겠지만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3가지 영역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Viable Rural Economy)가 추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농다각화, 농의소득기회확대, 산업구조 다변화 등 농촌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활기찬 농촌지역사회(Vibrant Rural Community)가 형성되어야 한다. 수직적, 종속적 지역정주구조를 탈피하여 수평적·협력적 관계구조를 갖는 지역네트워크 형성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건강한 농촌환경(Healthy Environment)이 유지되어야 한다. 농촌환경을 단순히 보존하는 수준을 넘어 농촌활성화의 차별적 기반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어메니티 자원으로서의 가치로 승화되어야 하며 이의 바탕 개념으로 어메니티 중심적 장소 마케팅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인간의 삶의 터로서 농촌공간은 미시적 및 거시적 측면에서의 정비가 시도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대규모 토지형 농업지역에서는 농가(Farmstead)가 농촌공간의 기본구성

단위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서구 등 대부분의 집약적 농업지역에서는 마을이라는 집단적 거주지역이 전체 농촌공간의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의 농촌공간정비는 마을을 단위로 하여 단위공간간, 상하위 공간계층간 관계구조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미시적 측면의 공간구조정비에서는 마을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취락 구조적 관점에서 주택(택지) - 도로 - 지역사회시설 - 녹지의 최적 조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연 - 농지 - 지역시설 - 마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가운데 경관과 기능이 아름답게 통합되어 심미적으로 가치 있는 전원공간의 창출에도 농촌공간정비의 관심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2. 정비여건

가. 농촌지역경제구조 변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농업종사인구는 5%이하이지만 농촌지역이라도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종사자의 비율이 서비스업은 물론이고 제조업 부문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농산물 1차 생산에서 벗어나 생산 + 가공 + 유통이 결합된 농업의 6차 산업화, 농촌관광 등 영농다각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구조면에서는 도시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경제,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농촌지역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는 일은 우선 시도되어야 할 일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후기산업사회화, 그리고 연이은 지식기반정보사회화의 큰 추세 속에서 글로벌 경제는 표준화된 경제에서 맞춤형 경제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이후에는 첨단기술의 발전에 의해 사회가 보다 근본적으로 변모하고 세계자본주의의 속성이 현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 가능한 경제·사회적 변

화는 선택성 확대, 경험경제, 네트워크화,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선택성 확대(Choice Explosion)

○ 맞춤형증화 추세에 의하여 “나에게 꼭 맞는 것(it-must-fit-me)”을 지향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쇼핑어드바이저”와 같은 선택 관리자(Choice Adviser) 직종이 성장하며 선택 폭의 확대에 의해 부유층은 여유시간 이용방법이 다양해지지만, 사람들은 시간에 쫓김에 따라 매우 분주해 질 것임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보급 확대로 면전은 물론이고 온라인 상에서 친교의 기회는 많아지며, 이에 따라 개인은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에 소속되지만 사회가 파편화 하고 있다는 느낌은 가속화

2) 경험경제(Experience Economy)

○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경험경제를 지향
○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짐에 따라 확대된 경험영역을 통해 만족을 구할 것이며, 테마식당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경험으로 상품을 포장

○ 노동력 부족사태에 직면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사무실, 양호한 작업환경 및 가족적인 분위기 등과 같은 고급스러운 일터 경험이 필요하며 특징있고 호소력 있는 경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통상적 수준 이상의 기술을 습득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필요

3) 네트워크화(Networks)

○ ICT의 보급 확대라는 강력한 영향에 의하여 네트워크사회로 이행되며 아웃소싱이 보다 근본적인 극단으로 전개

○ 효율성 증대의 필요성과 경쟁에 의해서 경제조직들은 관리지원부서(Back Office)와 생산과정들을 외주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분리, 이전함으로써 유명회사들은 브랜드개발, 소비자 만족, 공급네트워크관리 및 기타 산업리더십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거대 자원을 자유화

○ 공급자들은 핵심경쟁부문에 집중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
○ 공공부문도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

○ 아웃소싱이 더욱 발전하면 조직을 해체하여 소규모단위로 쪼개져서 소기업이 성장하게 되고 선진 통신택제를 이용하여 기업가는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법률, 설계, 마케팅 및 기타 전문가 그룹을 신속히 집합

○ 가상공간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고용이 보다 분산

표준화 경제	맞춤형 경제	추가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제 내에서의 규모의 경제 ○ 표준화된 생산-대량소비 ○ 제조업 ○ 수직적 통합조직 ○ 인적상호작용은 2차적 ○ 핵심노동시장 확대, 주변노동시장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제 내에서의 규모의 경제 ○ 탄력적인 전문화-대량맞춤 ○ 서비스 ○ 수평적으로 확산된 네트워크 ○ 인적상호작용이 중심 ○ 핵심노동시장 축소, 주변노동시장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에 의한 강력한 경쟁 ○ “나에게 꼭 맞는” 가치 - 관리된 선택 ○ 경험 ○ 보다 본원적인 아웃소싱, 분산고용 ○ 기술인력 부족 심화 ○ 노동시장이 긴박해짐에 따라 핵심부 성장

4) 기술인력 부족(Skill Shortage)

○ 경제성장과 일터에서의 인간관계 의존성 증대로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소위 신경제 기술이 창조성, 창의성 및 지식관리상 요구되고 있지만 중간 및 저급기술에 기반을 둔 구경제도 또한 중요

○ 따라서, 신경제의 건강성은 이러한 구기술의 가용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술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 고급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보다 복잡한 작업이 가능하고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노동집약적인 특성에 의해 기술수요는 증대

○ 이에 따라 주변부 노동인력은 축소되는 대신 핵심노동인력은 증대되어 고용환경이 개선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이 가속화되어 가는 국가경제 속에서 구성부문인 농촌지역경제는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서 지역적 여건에 따라 지역분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미래에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촌권역분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통근권역(Commuter Countryside)

○ 주로 대도시권에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거나 접근로 상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장래에는 가상적인 접근성(Virtual Accessibility)에 의해 규정

○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도시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들은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건물을 지으므로 도시 주변부에 많은 일자리가 발생

○ 재택근무의 확대와 함께 특히 전문직 및 관리직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통근을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통근 패턴도 다양화

○ 광역고속 교통망의 확충에 의해 전통적인 농촌지역이 대도시 통근권으로 편입되어 농촌경제가 구조적 변화

○ 재택근무에 의해 통근자들이 지역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지역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농촌지역사회의 건강성 회복가능

(2) 농촌도읍(Country Towns)

○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는 농촌중심지로서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과 같은 가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및 기업활동의 초점

○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진흥되고 있으나 농업 쇠퇴, 쇠신적이지 못한 관광 공급자, 타지역·타부문과의 경쟁 격화 등으로 불확실성도 상존

○ 소비자 근접 서비스와 신규유입자의 경제적 능력 보유 등으로 활성화 가능

○ 좋은 이미지, 여유 있는 공간이용, 쾌적한 환경 및 저렴한

노동력, 아웃소싱 확대에 의한 소규모 전문기업 성장 등의 이점에 의해 기업이전 및 창업에 유리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보다 효율적인 가상적 네트워크와 재택근무의 지향으로 조직 활동이 다수의 소규모 단위로 분산되어 상당수가 농촌도읍에 입지

(3) 농업지역(Farmed Countryside)

○ 국민들이 전통적으로 그리는 농촌모습으로 농경지, 숲, 오픈 스페이스에 농업용 시설과 마을이 점재되어 있는 공간으로 농촌지역에서 중추적 위상

○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 에너지 및 비식품 작물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변화, 신기술 적용 등에 의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부여되지만 이에 적응하지 못한 농민은 이농하게 되어 현재의 탈농 추세는 지속되고 국제적 경쟁에 노출되면 기본식품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가장 취약

○ 맞춤형경제의 성장으로 전문 및 지역식품에 대한 수요 증대, 환경적 관심의 지속적 성장, 신기술에 의해 새로운 시장 창출, 생물공학 기술의 진보 등에 의해 농업혁명 발현가능

○ 새로운 경제적 기회에 대한 농업의 반응은 지식 및 네트워크에 기반한 신경제 산업화와 소비자 지향화

○ 대농들은 규모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유기농, 고복지형, 희귀종 육종, 지역 토착형 추구 등 고급화 및 차별화하는 반면 소농들은 지역 및 틈새시장에 직접 판매하거나 이를 통해 부가가치 증대

○ 토지이용이 다양화되어 관광, 위락,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고양, 그린 에너지 생산 등과 같은 영농이외의 영업과 목표를 지향하고 농촌경제의 전체적 발전과 지속적 진흥에 초점

○ 장래 농업 = 농촌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사라지고 생산과 환경관리가 다양한 규모로 일괄되는 새로운 모습의 농촌이 출현

(4) 폐산업지역

○ 골재채취, 광산마을과 이촌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지역으로 경제재구조화 과정에서 산업은 잃었지만 아직 역할이 설정되지 못함

○ 자체적인 재투자의 규모 및 시기, 지역의 이점, 지역기업 및 지도자들의 창의력, 정부지원의 가능성 등이 이들 지역의 장래에 크게 영향

나. 어메니티 자원화와 장소 마케팅

농촌어메니티는 “농촌지역 특유의 녹이 풍부한 자연, 역사, 풍토 등을 기반으로 하여 여유, 정감, 평온이 가득하고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바탕을 둔 정주 쾌적성을 갖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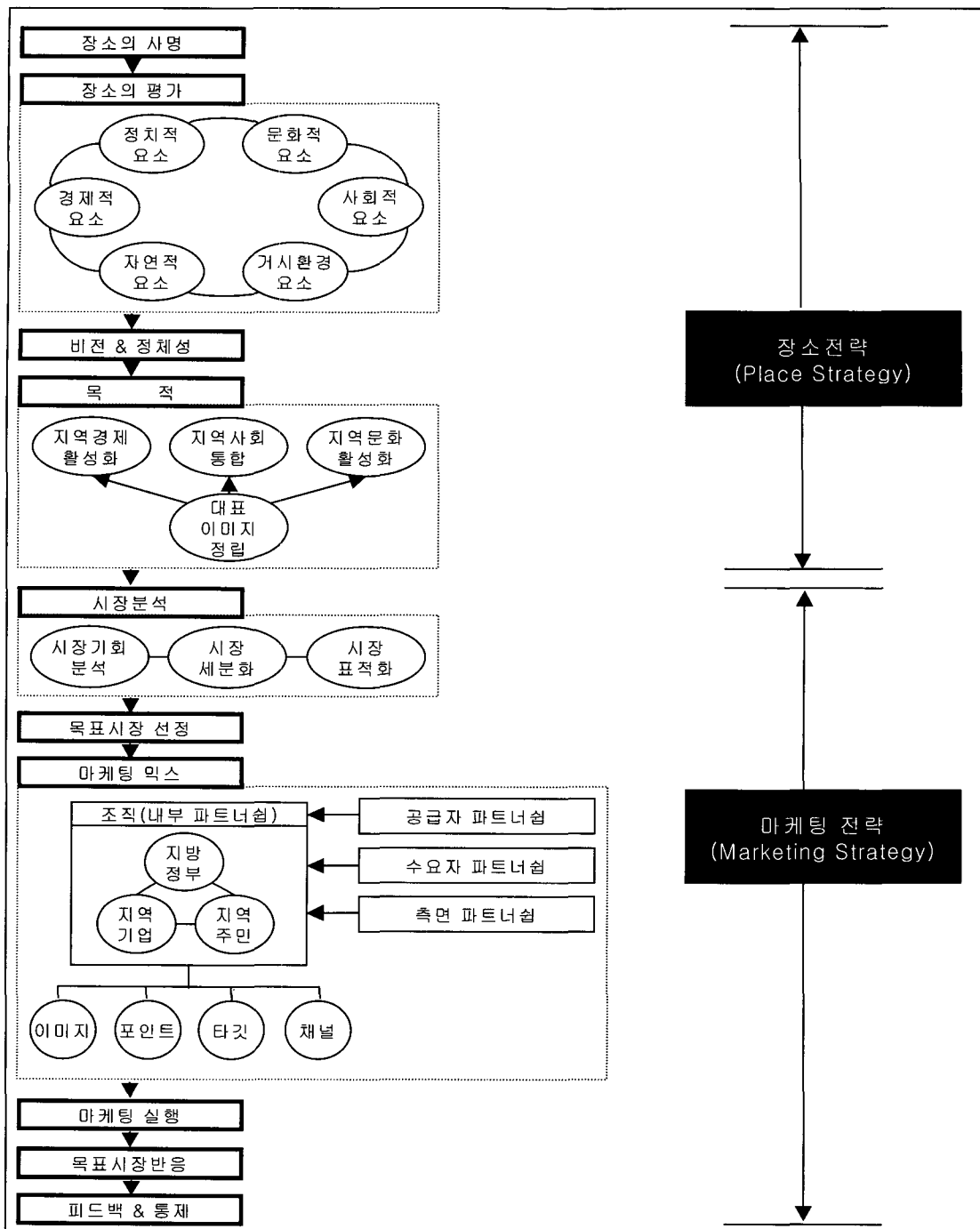


그림 1 장소전략과 마케팅 전략

있다.

이러한 농촌어메니티는 일반적으로 고유성, 비가역성, 불확실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농촌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고유성이란 특정 어메니티가 해당 지역에만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뜻으로 특정한 농촌지역의 개발사업이 그 곳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어메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지역정체성과 긴밀한 관련을 맺게 되고 적소

시장(Niche Market)을 창출하는 데 있어 더욱 쉽게 우위를 점하게 될 수 있다. 비가역성이란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사라진 어메니티는 복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따라서 비가역적인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하는 개발은 무제한적인 어메니티 활용이기 보다는 적정 수준의 보호를 동반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어야 한다. 불확실성이란 어메니티 가치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에 따라 같이 변동

함을 의미하며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선호가 변동한다는 것은 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들에 대한 수요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다. 이는 이제까지 간과되어 왔던,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자원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함을 의미한다.

농업구조조정과 WTO 체제 출범에 의해 피폐해진 농촌지역을 회생·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서구 선진국들은 이러한 농촌 어메니티를 자원화 하여 새로운 농촌개발의 모델로 삼으려는 노력을 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경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경우에 따라서는 영역적 접근(Territorial Approach)이라고도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효율성과 가치를 부여하여 농촌 어메니티를 경제재로 자원화 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농촌관광 또는 녹색관광(Rural or Green Tourism)인데 이는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이라는 기본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장소 마케팅은 “공사적 주체들이 기업가, 관광객, 지역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지역의 이미지를 판매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경제·사회적 활동”으로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약간씩 상이한 측면이 강조된다. 일반 마케팅은 “개인이나 조직이 소비자의 욕구 충족 및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가치 등을 창조하여 교환하는 과정”인데 비해 장소는 “일정한 공간에 위치한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공유된 가치, 신념, 상징을 보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 토대” 이므로 장소마케팅은 지역에 대한 진지한 성찰 → 지역상황의 정확한 평가 → 지역의 장기 비전 수립 → 구체적 달성전략 수립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소마케팅은 공사부문기관, 이해관계집단,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밀접한 파트너십 체계 구축(관계 마케팅)이 기반이 된다.

장소마케팅 전략은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시대 각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지역개발의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이미지·정체성·공동체 의식을 재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장소마케팅 전략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이미지 및 정체성 확보에 양대 의미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지역이미지·정체성 확립 → 정주성 확보 및 주민통합 달성
- ② 외부기업과 관광객 유치 → 지역경제 활성화
- ③ 지역주체들의 창의력 의지와 자발적 노력 → 내발적 지역발전
- ④ 지역 나름대로의 독자적 발전추구 → 지역불균형 해소
- ⑤ 풍부한 마케팅자원 활용 → 지역개발의 핵심방식

장소마케팅 전략은 기존의 마케팅 기법과 지역의 전략계획을 결합한 것이므로 크게 장소전략과 마케팅전략, 2축의 결합체로 볼 수 있다. 장소전략은 “마케팅의 대상인 장소자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평가를 바탕으로 마케팅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며 마케팅 전략은 “장소전략을 토대로 구체적인 마케팅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어메니티 중심적 장소마케팅은 농촌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장소자원으로 고양·발현시킨 다음 이를 마케팅하여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다. 네트워크 사회

지역, 국가 수준은 물론이고 지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은 결절점(Node)과 연결선(Link)으로 구성된 그물망(Network)을 형성하여 상호 밀접한 연계관계를 갖고 있다. 실험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두 사람 사이에도 6단계의 지인(知人)에 의해 연결이 가능함이 입증되고 있다. 이를 네트워크 이론에 의하면 6단계의 분리라고도 말한다.

네트워크는 고속도로망 등과 같이 대부분의 노드들이 거의 같은 수의 링크를 갖고 있는 무작위 네트워크(Random Network)와 항공노선망처럼 대다수의 노드들은 소수의 링크만을 갖고 있지만 극히 많은 링크를 갖는 소수의 허브들이 함께 있는 척도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로 구분할 수 있다.

척도없는 네트워크의 개념은 Chaos, Fractal 등과 함께 복잡한 사상 속에서도 일정한 법칙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어 80/20 법칙(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20% 인원이 회사 수입의 80%를 벌어들인다), 부익부 빈익빈 법칙이 성립된다. 또한 링크가 많은 노드와 그렇지 않은 노드의 존재에 의해 허브(Hub)와 커넥터(Connector)가 형성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클러스터화된 사회네트워크는 내부적으로 강한 끈으로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작은 서클들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클러스터간에는 약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자원의 속성과 연계시킨 네트워킹 효과 극대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농촌자원은 기본적으로 규모 면에서 매우 적고(소규모성), 넓은 지역에 걸쳐 산재되어 있으며(산재성), 그러면서도 특정자원은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분포하고 있는 가운데(편재성), 자원 이용은 많은 경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함께 이용되는 것(복합성)이 특징

○ 농촌자원이용은 기존의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기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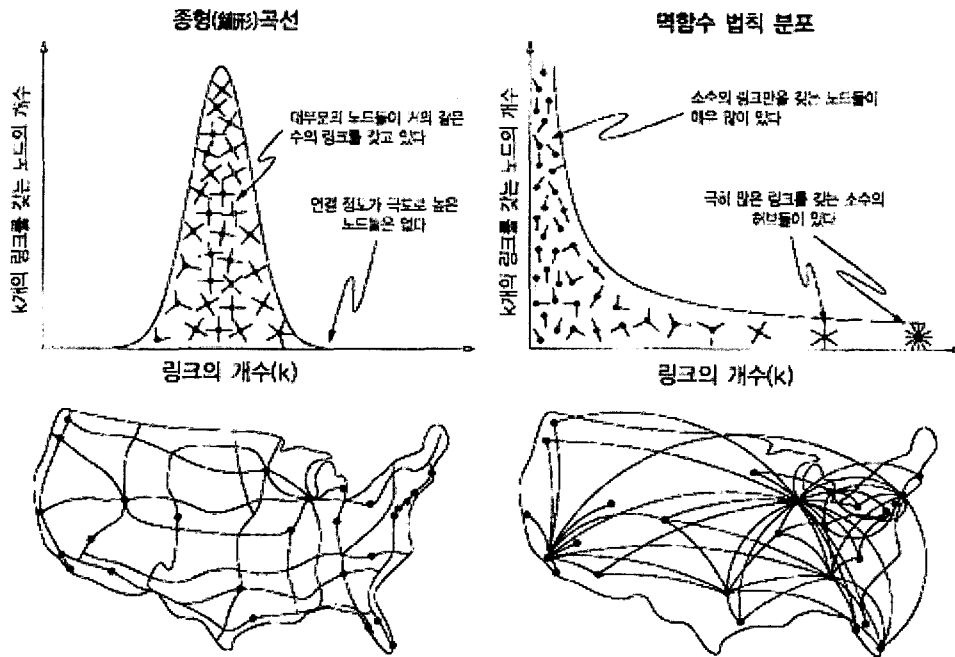


그림 2 무작위 및 척도없는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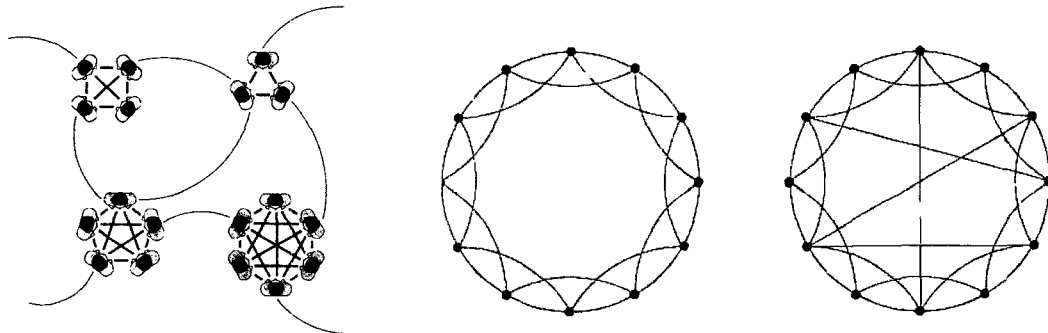


그림 3 클러스터

원활용형), 가치 제고를 위해 변형 또는 개량하는 방법(자원개량형), 그리고 전혀 새로운 자원을 부여하는 방법(자원창설형)이 있는데 기존자원을 개발수준에 의해 구분해 보면 다음 표 1와 같음
 ○이러한 기본적 속성과 이용상 특성, 다양한 개발수준을 가진 단위자원들을 상호보완적 또는 상생적으로 네트워킹화 하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켜 기하급수적 유발효과를 고양 가능

표 1 개발수준별 자원

개발수준	설명
미개발 자원	잠재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되지 않는 상태
저개발 자원	잠재적인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상태
과개발 자원	수용능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개발된 상태
오·남개발 자원	용도에 맞지 않거나 무질서하게 개발된 상태
적정개발 자원	용도에 적합하며 허용한계 용량에 균형 되게 개발된 상태

3. 정비방향과 전략

가. 마을정비

농촌정비의 세계적 선진국인 독일은 1937년 “제국 경지정리령”에 이은 농지정비법에 의해 농촌공간정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분산된 소규모 경지를 규모화·집단화하는 경지정리에 집중하다가 이러한 과정에서 경지지구와 취락지구 사이의 조정, 생활환경개선 수요 증대 등의 여건 변화가 발생되어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정비사업이 무리 없이 병행되었다. 1970년 이후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농지정비사업에 소생물공간 조성(Biotop)과 전원경관조성부문이 추가되어 사업성격자체가 “景域化”(Landscape)하고 있다.

농촌정비의 선진국인 독일의 마을정비 발전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농촌지역의 경우 역사적으로 공유지(Common Land) 개념에 의해 자유로운 토지이용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도시계획적인 토지이용규제제도의 도입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경지정리에 의한 토지이용조정은 가장 강력한 농촌 토지이용계획 실현수단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대적 요구에 맞게 경지기반정비 및 규모화 → 취락구조 현대화 → 어메니티 공간의 창출로 발전시킨 것은 우리도 벤치마킹 해야 할 훌륭한 농촌정비모델이라 말할 수 있다.

마차가 주요 운송수단이었던 대부분의 서구국가(일본도 포함)의 경우 운송수단이 자동차로 바뀌어도 농촌마을의 교통소통에 별다른 지장이 없기 때문에 취락의 구조적 개편은 거의 불필요하였다. 그러나 우리 농촌마을의 경우는 극히 일부 평야부 마을과 계획취락을 제외하고는 도보통행을 전제로 마을공간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마을내부에 차량통행을 가능케 하려면 내부도로망 정비를 근간으로 하는 취락구조의 상당한 개편이 불가피하다. 또한 농촌마을 물리적 인프라의 핵심부문인 공급처리시설(상하수도, 가스, 통신케이블 등)의 체계적인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취락구조의 계획적 개편은 전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농촌마을의 과소화 및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그간 논의가 금기시 되었던 한계마을의 처리문제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거주주민수 또는 가구수가 한자리 숫자이고 주민전체가 6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는 농촌마을이 원격지역의 경우 그리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마을들이 가까운 장래에 특별한 재생(Revitalization)의 전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 과소마을을 통합하는 계획도 이제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을집단화를 추진하였던 대부분의 국가, 심지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소련에서 마저도 폐촌을 전제로 한 마을통합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발전되었던 농촌마을은 그 자체가 자연과의 조화, 인간 지혜의 결집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마을의 소멸은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이고 출향인사, 인근마을 주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폐촌이 불가피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유, 집단이 주 하였을 때의 거주성 개선 가능성에 대한 보장, 마을유지(遺址)의 적절한 보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통성이 매우 강한 농촌마을의 취락구조를 개편하는 일은 취락구조의 원형은 유지한 채 부분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유형(개선

형), 취락구조 자체의 상당한 조정을 시도하는 유형(정돈형), 마을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유형(이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유형을 선정하는 일은 전통마을의 취락구조에서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취락의 구성·형성 논리를 찾아내서 보존·계승·발전하여야 할 부분과 개선·변형·정리하여야 할 부분을 찾아내는 일과 연결된다. 농촌마을은 과거 - 현재 - 미래 속에서 비교적 연속성이 큰 활동들을 담아내는 그릇이므로 "민속마을"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현대생활에 적합하게 그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다만 전통마을의 기본적인 구성원리 중 상당수가 현대의 마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예를 들면 배산임수의 택리 원리) 일부는 발현 형태 면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통적 원리의 현대적 해석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마을분석의 유효한 수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이다. 이는 공간적 구조와 인간의 문화 사이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가 있으므로 공간구조를 분석하면 문화를 알 수 있고 반대로 지배적인 문화는 공간구조상의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를 거치면 취락구조의 해석과 계획분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지역공간 구조 개편

농촌지역의 정주공간구조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 그 중에서도 취락지리학분야에서 일찍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정주공간구조를 중심지와 배후지역으로 구분하고 중심기능의 계층구조에 따라 중심지 사이에 일정한 계층 구조적(Hierachial Structure) 질서를 밝히는 이론적 방법론이 중심지 이론이다.

이러한 중심지 이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농촌공간의 계층구조는 군 지역의 경우 읍급 중심도시 - 면급 또는 중심마을급 중심지 - 자연마을의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층화된 생활·생산 서비스 기능들이 배열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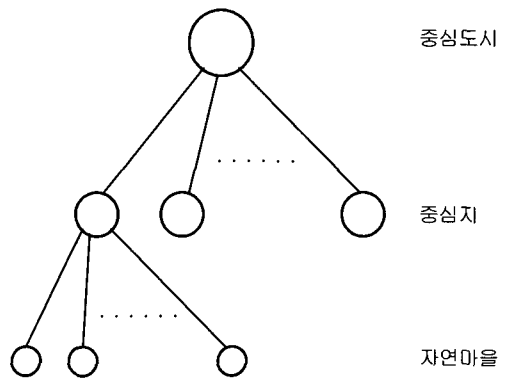


그림 4 계층적 정주구조

농촌정주공간구조는 마을과 마을, 중심지와 중심지 사이의 수평적 연계구조보다는 마을과 중심지, 중심지와 중심도시 사이의 수직적·종속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고 이는 필연적으로 마을 → 중심도시로 진행되는 상향으로의 자원집중을 유발하는 주요요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도시근교지역은 도시적 영향력의 증대에 의해, 원거지역은 과소화에 의해 이러한 도식적이고 영역 폐쇄적인 정주공간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인구잠재력 면에서 보면 1999년 말 현재 인구 3,000명 이하의 면 지역이 전체 면 수의 28.6%에 이르고 있다. 중학교 1개교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포괄인구(Catchment Population)가 5,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

다는 점을 감안하면 1/3 이상의 면 지역이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도시근교지역을 중심으로 중심기능의 이용 면에서 중간 중심지를 뛰어 넘어 차상위 중심지에 직결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부지가 소요되는 대형 할인점, 집배송시설 등이 접근성이 좋은 간선도로 주변 또는 주요간선도로 교차부에 입지하게 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상의 계층구조는 급격히 와해되고 있다.

농촌활동의 소규모성은 “Small is beautiful”로 표현되듯이 찬양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규모의 경제 추구 측면에서는 농촌발전의 큰 걸림돌인 것도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역농업의 형성,

표 2 농촌 면급지역의 인구잠재력 규모

시·도		계	면 급 지 역							
			1000이하	1,000~2,000	2,000~3,000	3,000~5,000	5,000~10,000	10,000~20,000	20,000~30,000	30,000~50,000
부 산 시	빈도	3					2	1		
	%	100					66.7	33.3		
대 구 시	빈도	6				1	2	3		
	%	100				16.7	33.3	50		
인 천 시	빈도	19	2	4	3	9	1			
	%	100	10.5	21.1	15.8	47.4	5.3			
울 산 시	빈도	5		1		2	2			
	%	100		20		40	40			
경 기 도	빈도	129	6	2	6	22	52	35	5	1
	%	100	4.7	1.6	.7	17.1	40.3	27.1	3.9	0.8
강 원 도	빈도	96	7	9	21	36	21	2		
	%	100	7.3	9.4	21.9	37.5	21.9	2.1		
충청북도	빈도	88	2	4	20	33	20	9		
	%	100	2.3	4.5	22.7	37.5	22.7	10.2		
충청남도	빈도	147		1	13	59	63	9	2	
	%	100		0.7	8.8	40.1	42.9	6.1	1.4	
전라북도	빈도	145		15	35	61	33	1		
	%	100		10.3	24.1	42.1	22.8	0.7		
전라남도	빈도	199	1	16	44	76	56	5	1	
	%	100	0.5	8	22.1	38.2	28.1	2.5	0.5	
경상북도	빈도	204		13	48	90	46	7		
	%	100		6.4	23.5	44.1	22.5	3.4		
경상남도	빈도	177		23	52	48	42	12		
	%	100		13	29.4	27.1	23.7	6.8		
제 주 도	빈도	5		1		1		3		
	%	100		20		20		60		
전 국	빈도	1223	18	89	242	438	340	87	8	1
	%	100	1.5	7.3	19.8	35.8	27.8	7.1	0.7	0.1

자료 : 행정구역요람(2000, 행정자치부)에서 계산·정리

소규모 활동들의 연대·협동에 의한 규모화, 범위의 경제추구 등이 시도되고 있다. 품목별로 주산지, 가공공장,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광역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신장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는 대형허브(금산 인삼시장이 예)로 성장하기도 한다. 일본의 아지무 및 오이타현 그린투어리즘 협회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관광에 참여하는 개별농가의 소규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초 및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협동·연대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품목·서비스를 클러스터링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범위의 경제 추구도 새로운 농촌 발전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제반여건변화는 현대사회의 네트워크화 경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그리고 지역과 사람의 관계가 복잡화·다양화·다원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식적이고 경직된 수직적 정주계층구조로 인간활동을 담아낼 수 없다. 따라서 이제 농촌 공간도 네트워크 구조로 변모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네트워크가 형성된 농촌공간은 개별활동 또는 유사 및 관련활동군별로 다양한 클러스터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개별활동 노드들의 연계빈도가 빈번하여 중심성이 집적되면 자연스럽게 허브를 형성하고 허브와 허브사이에는 계층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브-노드 구조와 클러스터는 노드와 노드 사이의 수평적 협력·연계의 활성화에 근본적으로 바탕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형 농촌공간구조는 기본단위가 충실하면서도 공간효율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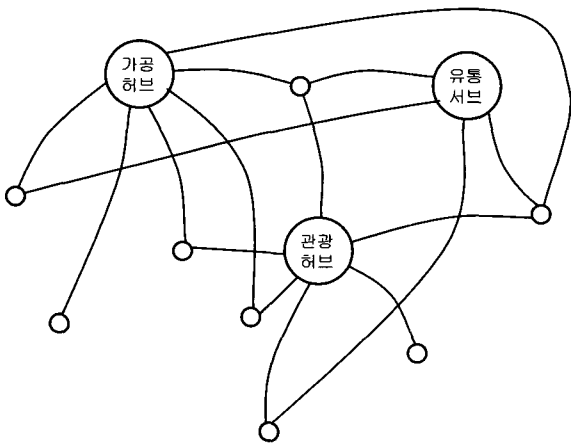


그림 5 허브 - 노드 구조

4. 맺음말

농촌의 변화는 지난 60년대 이래 꾸준히 지속되어 왔지만 공간구조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느리고 지체되어 있다. 공간구조는 과거 인간활동을 담아낸 그릇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동안 항상성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어떠한 농촌공간구조가 가장 합당할까 생각하는 것과 실제 어떻게 고치고 꾸며나갈 것인가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며 깊은 사려와 통찰을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도 진리이다. 역사의 큰 맥락으로 길게 호흡하면서 지금, 그리고 가까운 장래와 작지만 어떻게, 얼마만큼 고쳐나갈 것인가 에는 모두의 지혜를 합쳐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강병남, 김기훈, 2003, 링크 -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동아시아(원저: Barabasi, Linked - The New Science of Networks, East - Asia Publishing Co.)
2. 김정섭, 2002, 농촌개발과 어메니티: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합의, Agroiinfo Issue No.6 (www.agroiinfo.net)
3. 이무용, 2002, 도시마케팅 전략에 대한 문화적 재고찰, 도시정보 No.247, pp.3-15
4. 최수명, 2004, 농촌자원조사 및 활용방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실무교육자료, 농업기반공사, pp.123-138
5. The Countryside Agency, 2002, The State of the Countryside 2020, The Tomorrow Project Report to the Countryside Agency